



88140117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10 November 2014 (morning)  
Lundi 10 novembre 2014 (matin)  
Lunes 10 de noviembre de 2014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때는 정히 오정이라 안마루에서는 점심상이 벌어졌다. 경희는 사랑에서 들어온다. 시월이며 건넌방 형님은 간절히 점심 먹기를 권하나 들은 체도 아니하고 골방으로 들어서며 사방 방문을 꼭꼭 닫는다. 경희는 흑흑 느껴 온다. 방바닥에 엎드리기도 하다가 일어났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벽에다 머리를 부딪친다. 기둥을 붙끈 안고 핑핑

5 돈다. 경희는 어찌할 줄 몰라 찢찢맨다. 경희의 조그마한 가슴은 불같이 타 온다. 걸린 수건 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이따금 하는 말은 “아이구, 어찌하나…….” 할 뿐이다.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밥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질 터이니까 나를 어서 다른 집으로 쫓으려나 보다 하는 원망도 생긴다. 마치 이 넓고 넓은 세상 위에 제 조그마한 몸을 들

10 곳이 없는 것같이도 생각한다. 이런 쓸데없고 주체스러운 것이 왜 생겨났나 할 때마다 그쳤던 눈물은 다시 비 오듯 쏟아진다. 누가 와서 만일 말린다 하면 그 사람하고 싸움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를 한 번에 잡아 뽑을 것도 같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냇물과 같이 흐르도록 박박 할퀴고 쥐어뜯을 것도 같다. 이렇게 사방 창이 꼭꼭 닫힌 조그마한 어둠침침한 골방 속에서 이리 부딪고 저리 부딪는 경희의 운명은 어떠한가!

경희의 앞에는 지금 두 길 이 있다. 그 길은 희미하지도 않고 또렷한 두 길이다.

15 한 길은 쌀이 곡간에 쌓이고 돈이 많고 귀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밟기도 쉬울 황토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않은 탄탄대로이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찧어야 겨우 얻어먹게 되고 종일 땀을 흘리고 남의 일을 해주어야 겨우 몇 푼 돈이라도 얻어 보게 된다. 이르는 곳마다 천대뿐이요, 사랑의 맛은 꿈에도 맛보지 못할 터이다. 발부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험한 돌을 밟아야 한다. 그 길은 뚝 떨어지는 절벽도

20 있고 날카로운 산정도 있다. 물도 건너야 하고 언덕도 넘어야 하고 수없이 꼬부라진 길이요, 갈수록 험하고 찾기 어려운 길이다. 경희의 앞에 있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오늘 택해야만 하고 지금 꼭 정해야 한다. 오늘 택한 이상에는 내일 바꿀 수 없다. 지금 정한 마음이 이따가 급변할 리도 만무하다. 아아, 경희의 발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에 내놓아야 할까. 이것은 교사가 가르칠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어서 충고한대도 쓸데없다.

25 경희 제 몸이 저 갈 길을 택해야만 그것이 오래 유지할 것이고 제 정신으로 한 것이라야 변질이 없을 터이다. 경희는 또 한 번 머리를 부딪고 “아이구 어찌하면 좋은가!” 한다.

경희도 여자다. 더구나 조선 사회에서 살아온 여자다. 조선 가정의 인습에 파묻힌 여자다. 여자란 온량유순해야만 쓴다는 사회의 면목이고 여자의 생명은 삼중지도\* 라는 가정의 교육이다. 일어서려면 압박하려는 주위요, 움직이면 사방에서 들어오는

30 욕이다. 다정하게 손 붙잡고 충고 주는 동무의 말은 열 사람 한입같이 “편하게 전과 같이 살다가 죽읍세다.” 함이다. 경희의 눈으로는 비단옷도 보고 경희의 입으로는 약식 전골도 먹었다. 아아, 경희는 어느 길에 택하여야 당연한가? 어떻게 살아야만 좋은가? 마치 길가에 탄평으로 몸을 늘여 기어가던 뱀의 꼬지를 지팡이 끝으로 조금 건드리면 늘어졌던 몸이 바짝 오그라지며 눈방울이 대륙대륙하고 뽀족한 혀를 독기 있게 자주

35 내미는 모양같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경희의 몸에 매달린 두 팔이며 늘어진 두 다리가 바짝 가슴속으로 뱃속으로 오그라 들어온다. 마치 어느 장난감 상점에서 놓은 대가리와 몸뚱이뿐인 장난감같이 된다. 그리고 13관의 체중이 급자기 백지 한 장만치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 같다. 또 머릿속은 저도 알 만치 멍하고 서늘해진다. 눈도 깜짝거릴 줄 모르고 벽에 구멍이라도 뚫을 것 같다. 등에는 땀이 흠뻑 피고 사지는 죽은

40 사람과 같이 차디차다.

“아이구, 어찌하면 좋은가.”  
경희는 병어리가 된 것 같다. 아무 말도 할 줄 모르고 꼭 한마디 할 줄 아는 말은 이  
말뿐이다.

나혜석 “경희” <여자계> (1918)

---

\* 삼중지도: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였다

2.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한 손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 5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써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 10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비유가 아니라 주먹이며,  
주먹의 바스라짐이 있을 뿐,

이제 이를 수 없는 것을 또한 이루려 하지 말며  
헛되고 헛됨을 다 이루었도다고도 말하지 말며

- 15 가거라, 사랑인지 사람인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  
기다리는 것이다,
- 20 다만 무참히 꺾여지기 위하여.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내 몸을 분질러다오.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네

- 25 꽃  
병  
에

- 30 꽃  
아  
다  
오

최승자 <즐거운 일기> (2010)